

공

트

초

대



**최** 지숙(崔智淑)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주례를 부탁하러 왔을 때 권일수(權一秀)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혼식 주례로는 무자격자(無資格者)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권일수 자신이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유복한 편이 못되었기 까닭이다.

권일수는 아내와 사별한지 5년이 된다. 슬하에 딸자식 하나를 두고 있을 뿐, 아들도 두지 못했다.

그 자신은 아들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데 크게 억울해 하고 있지도 않지만 집안사람들이나,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웃들은 사뭇 측은해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딸린 계집아이는 아직 어리고, 게다가 듣기 사나운 말로, 「홍애비」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권일수는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갖고 있어, 자신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시 결혼의 주례로는 자신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례로서 무자격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시 결혼식의 주례라면, 부귀영화도 누리

고 있고, 부부생활도 원만하며, 아들딸도 고루 갖춘 위인이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지숙의 결혼식 주례를 그만 승락하고 말았다. 지숙의 부탁이 그만큼 간곡하기도 했지만, 그녀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리라.

지숙은 권일수의 많지 않은 제자의 하나였다.

권일수는 교단에 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사숙해 온 몇몇 제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 가운데 지숙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만약 지숙이 10년만 나이 들어 있고, 권일수 자신이 10년만 젊었더라도, 그렇게 해도 연령적인 불균형이 있겠지만, 아마도 억지로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애제자였던 것이다.

지숙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으면서도 어쩐지 서운하고 쓸쓸한 느낌마저 들었다.

거기에 주례까지 서라니.

자신의 늙음을 재확인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같고, 애제자로서의 지숙이 자신의 인생을 비양거리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마저 들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주례를 맡은 것이다.

여자란, 남자도 다소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결혼을 하면, 새로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애제자



## 洪性裕

서울출생  
 서울대법대 한국일보 창간 3주년기념  
 현상응모에 장편소설 「비극은없다」로  
 당선  
 현 한국문인협회이사  
 한국소설가협회 감사  
 예총이사  
 펜클럽 이사  
 주요작품 : 「비극은없다」 「후조의 귀로」  
 「사랑의 기수」 「가슴마다 사랑이」  
 「정물심은 땅, 외 다수」  
 조선일보 인생극장 연재중

최지숙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쩌면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서운하고 두려워서, 주례라는 인연으로 지숙과 유대를 이어가고 싶었던 심리가 작동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이렇게 해서, 그는 최지숙의 결혼식을 맡았다. 지숙의 신랑 남석훈은 운동선수처럼 늘씬한 키에 허우대도 벗어논 배추통처럼 깨끗한 것이 인상이 좋았다.

고향 B지에서 운송사업을 주종으로 하고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장래가 유망한 청년사업가라는 것이었다.

권일수는 진정으로 이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랑·신부가 권일수에게 인사를 왔다.

이제 지숙은 완전히 자기 곁에서 떠난 여자라고 생각되어서 서운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결혼에 축복하는 마음에 변함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지숙의 신혼살림은 신랑의 고향인 B지에서 가진대서 그녀는 남편을 따라 B시로 내려갔다.

그 후, 권일수는 지숙을 만난 일이 없다. 결혼한 첫째에는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 오더니, 그 다음해 부터는 그것마저 그쳤다.

지숙이 이제 새가정의 여인으로서 남편에 충실하기 때 문이려니 해서 섭섭할 것도 없었다. 지숙의 뇌리에 스승

권일수의 모습이 희미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머리 속에서도 이제 지숙의 그림자는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 점, 인간의 감정이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풍문처럼 그녀가 두꺼비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로부터 들었을 뿐, 전혀 소식조차 들은 일이 없었다.

그러한 지숙이 결혼한지 5년만에 정말 느닷없이 찾아 온 것이다.

권일수 자신도 더욱 늙은 나이가 되었지만, 지숙도 세월은 다룰 수 없었던지 옛날의 그 청초하고 발랄했던 여여쁨은 사라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것이 생각 탓인가, 어딘지 피폐해 보였다.

「아니, 지숙이 아냐? 이게 어찌된 일이지?」

마침 석간을 펴두고 있었던 권일수는 돋보기를 벗어 들면서 그녀를 맞았다.

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던 만큼 세월을 건너뛴 5년후에도, 그 반가움은 순수한 것이었다.

「선생님, 그동안 소식 한번 옮겨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행복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지. 아들을 보았다면서? 지금쯤 또 동생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네…」

지숙은 나직히 대답했으나 고개를 쳐들지를 못했다. 지난날의 그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사라져 있는 것이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요, 세상이란 참 살아가기 힘든 것이라는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권일수는 불길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어쩐지 상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을 털어내려는 것처럼 그는 일부러 농담처럼 말을 건네고 너털거리며 웃었다.

「설마, 결혼5년만에 시집에서 쫓겨 나온 것은 아니겠지? 헛헛헛…」

「아직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요… 허지만 어쩌면 시집에서 쫓겨나온 편이 차라리 속 시원한 것일지도 모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권일수의 미간이 저절로 찌프려졌다.

지숙의 표정으로 그도 심각한 기분이 되어 긴장감을 느



끼게 되는 것이었다.

「모처럼 선생님 찾아뵙고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저의 애아빠는 참 엉뚱한 사람이잖아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통이 컸다고나 할까... 자기 힘에 부치는 손에 대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허어, 무슨 사업을 했기에...」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았나 할까, 1회용 주사기(注射器) 공장을 차렸다가 실패를 했어요.」

1회용 주사기라고 하면, 요즘 감염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권일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건 아주 유망한 사업일것 같은데?」

「아직 일반이나 병원측에 인식이 부족했다 할까,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던게죠... 그나마 유망사업이라니까 경쟁도 심하고..., 결국 실패를 하고 부도를 내어 편안히 들어앉아 있게 되었지 뭐예요...」

그러면서 지수는 쓸쓸히 웃었다.

편안히 들어앉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더 듣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저런...」

권일수는 위로할 말을 잊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활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됐어요...」

「가정 깊숙히 들어앉아 있었던 주부가 무슨 사업을 하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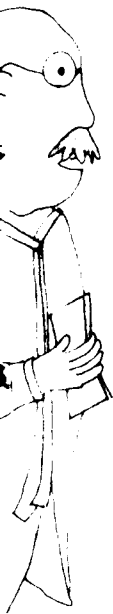
「그러기에 말예요... 그러나 창피 무릅쓰고 나서기로 했어요. 선생님. 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이 된거죠. 선생님께도 보험 권유를 하러 왔다고 하면, 절 욕하시겠어요?」

권일수는 실상 그녀가 보험을 권유하러 왔다고 해서 욕을 할 것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솔직히 달가울 것은 없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간다 할 수는 없었지만, 본래가 자유업이어서 정기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그는 여러 방면으로 부터 보험권유를 받아 왔었지만, 그 때 마다 적당한 구실을 붙여 사절을 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말이지 최지숙의 경우는 다르지 않은가? 자기 사정도 넉넉한 편은 아니라지만, 그냥 원조를 청했어도 한마디로 거절할 처지가 아니지 않은가. 더군다나 보험의 권유란 그저 달라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보험의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개인으로서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더이상  
선생님 괴롭히지도 않고  
선생님 찾아뵙지도  
않겠어요!

저축의 의미가 있다.

「그래, 얼마짜리를 어떻게 들면 되는거지?」

선선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로서의 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인정의 발로였다.

「정말, 정말, 들어 주시는 거죠?」

최지숙은 비로소 꽃다발같은 시선으로 옛 스승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권일수는 그녀가 그렇듯 기뻐하는 것만 보고서도, 보험에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딸아이를 위한 교육보험과 저축성보험 두 구좌를 들고 말했다.

권일수 자신이 나이가 많은데다가, 꼬마아이도 국민학교의 고학년이어서 다달의 납부금도 수월치 않은 고액인 셈이었다.

옛 제자에의 애뜻한 정으로 두말 없이 보험에 들어놓기는 했지만, 한달에 꼬박 3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니, 빠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뭐? 신체검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은 정말 짝새이었다.

「이 기회에 선생님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험가입도 받아 주지 못하겠다 하리만치, 내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지?」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주고 받았으나, 신체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이를 마다할 수는 없었다.

결국 권일수는 쑥스러운 마음과 불안한 심정을 아울러 느끼면서 보험회사 의무실로 찾아가 신체검사를 받았다.

보험가입을 거절할 만큼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었던지 가입이 허락(?)되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한 일예요!」

보험회사를 나오면서 지숙은 맑게 웃었다.

「응...」

권일수는 물색없는 긍정만 할 뿐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더이상 선생님 괴롭히지도 않고, 선생님 찾아뵙지도 않겠어요! 훗날 저의 애아빠가 재기했을 때 그때 가서야 다시 찾아뵙거예요! 저는 아빠의 재기를 굳게 믿고 있으니깐요...」

지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듯 붉어지는것을 권일수는 볼 수 있었다.

그 후, 실제로 지숙은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

권일수는 매달 매달 보험료 납부를 위해 은행을 찾아야만 했다. 그 자신의 꼼꼼한 성격으로 해서, 기일을 어기는 일도 없었다.

그러자니 자연 힘이 들었다. 정기적인 수입도 없이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정기적인 납부를 하자니 힘에 벅차는 달도 없을 수 없었다.

그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낭비도 삼가야 했고, 그만큼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하기도 했다.

그런지 어언 2년이 넘게 흘렀다.

그러나 지숙은 약속대로(?)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때로 보험금이 부담스러워질 때면, 지숙이 원망스러워 지기도 했고, 부담만 안겨 주고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그녀가 무책임한 것처럼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2년이 넘어서자 그녀의 덕분에 상당한 저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흐뭇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아직은 멀었지만 만기가 되는 날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최지숙이 그녀의 부군의 재기와 함께 다시 자기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만큼의 비중으로 기다리는 것이었다. ❖